

천주교 몬트리올 한국 순교 성인 성당

Mission Saints Martyrs Coréens
(Korean Roman Catholic Church in Montreal)

2461 Rue Saint-Jacques, Montreal, QC H3J 1H8

TEL 514-989-1033/ FAX 514-989-2382

E-mail : montrealkcmc@gmail.com/ 다음카페 "몬트리올 한국순교성인성당"



가해 제 1924 호 (2026. 6. 14)

연중 제11주일

전례 안내

주일미사	오전10시30분 (매월 마지막 주일 청소년 전례)
평일미사	오전10시(수금토) 오후 7시 (화 목)
토요특전(청년)	오후 5시
고해성사	미사 전
성 시간	매주(목) 미사후
봉 성 체	사전 신청
혼배성사	1년전 신부님 면담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11시 (사전신청 필수)

주임사제 및 사목회장

주임사제	최동철(다미안)
	☎ 514-424-6213
	sstminmontreal@gmail.com
사목회장	김광수(바오로)
연령회장	김도날드
	☎ 514-804-9094

사무실 운영시간

주 일	(일) 09:30~13:30
평 일	(화~금) 09:00~15:30
사무장	김성한(안드레아)
	☎ 514-989-1033

성가 ♪	연중 제11주일, 6/14
입 당	199
봉 헌	219
성 체	162, 154
파 견	200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탈출기 19,2-6ㄱ

화 답 송 시편 100(99),1-2.3.5(◎ 3ㄷ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 2 독서 로마서 5,6-11

복음환호송 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 음 ✕ 마태오 9,36-10,8

전례봉사자	연중 제11주일, 6/14	연중 제12주일, 6/21
해설	정현주	조혜경
독서	김지수, 고운정	박찬열, 권민
시종복사	김준호, 김현석(S)	목영수, 서정협
초복사	최정욱	윤성현
제물봉헌	첫 영성체 가족	
성체분배	김평집, 오상근	김광수, 황성연
친교	첫 영성체 가족	구역별 음식 나눔

■ 우리의 정성

☞ 미사 지향

일자	구분	지향	봉헌자
6/4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익열 이사벨라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연옥영혼을 위하여	연령회
"	생	연령회 회원들을 위하여	연령회
6/5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임명빈 스테파노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윤옥희, 김현동 영혼을 위하여	조중환 요셉
6/6	위령	김홍련 마이크, 고수미 베로니카를 위하여	정화자 현영
"	생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회원들을 위하여	홍미숙 마르셀라
"	생	윤우진 프란치스코와 첫영성체 어린이들을 위하여	익명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노콜린, 노성 안드레아 영혼을 위하여	노재일 다미아노 가족
"	생	안영배, 이재복 요셉 건강을 위하여	안소원 카타리나
"	생	이 제니퍼를 위하여	이영애 려다
"	생	첫 영성체를 받는 아이들을 위하여	이영애 려다
"	위령	홍선우 베드로 영혼을 위하여	홍윤정 세실리아
"	위령	장신화 영혼을 위하여	이 아네스
6/9	위령	이화숙 마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경성 가족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임명빈 스테파노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생	임명빈 스테파노를 위하여	문 로사 가족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6/10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생	임명빈 스테파노를 위하여	문 로사 가족
"	생	김기환 가뮐리우스를 위하여	김미경 모니카
"	생	이재복 요셉을 위하여	김미경 모니카
"	생	이재복 요셉을 위하여	유수정 가브리엘라

☞ 우리 본당 살림은 우리 힘으로

	5/31(일)	6/7(일)	누계
주일헌금	1,323.00	1,457.00	31,341.55
교무금	990.00	4,825.00	52,986.00
감사헌금	310.00	1,485.00	10,890.00

▶ 교무금(60명) 6/7 (일)

- 강옥정, 강이환, 계준호, 김경성, 김경자, 김광수, 김교중, 김성한, 김완현, 김윤기, 김윤철, 김준호, 김진홍, 김평집, 김한숙, 김현석S, 김현수, 김형주, 노재일, 류영옥, 박순희, 박정현, 서정자, 서효주, 송병태, 신기룡, 심규화, 심동철, 심영섭, 원경일, 원하종, 윤덕선, 윤성현, 이강숙, 이강훈, 이봉섭, 이연희, 이영재, 이예지, 이종완, 이준구, 이태경, 장동화, 장윤만, 전숙자, 정도영, 정진태, 정현주, 조순덕, 조영신, 조용인, 지승룡, 차연심, 채수호, 최 숙, 최성임, 최소희, 한동은, 한영미, 홍윤정

▶ 감사헌금 6/7 (일)

- 강옥정, 김평집, 박순희, 박정권, 박정현, 서정자, 윤덕선, 윤성현, 이경련, 이종완, 조순덕, 조영신, 최소희, 홍윤정, 최예린, 이시원



☞ 목주기도 (2027년 성모의 밤 봉헌)

지난주 누계	금주	금주 누계
1,780 단	833 단	2,613 단

교우 환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후순/멜라니아, 이옥주/마리아, 최은숙/멜라니아, 전영길/아브라함
정영섭/세바스찬, 김용욱/데레사, 송재훈/루카, 조필구/안토니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6/15) 김연숙 크레센시아, (6/16) 임희숙 요안나, (6/17) 김수연 데레사,
(6/18) 문준석 그레고리오, (6/19) 최수민 율리야나

본당 소식

	행사	모임
이번주		꾸리아 구역장 회의
다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미사 및 구역별 식사 중고등부 캠프 	

▶ 야외미사 안내

- 미사 일시 및 장소: 6/21(일) 오전 9시30분 대성전
- 식사 장소: 앙그리농 공원
- 이번 야외미사는 9시 30분에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앙그리농 파크로 이동하여 피크닉을 진행합니다.
- 우천시 본당에서 미사 후 명절 음식 나눔과 동일하게 구역별 식사를 하게 됩니다.

▶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캠프 안내

- 주일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여름캠프를 다녀옵니다.
- 일시: 6/26(금) 오전 10시 성당 집합 ~ 28 (일) 오후 12시 30분 도착
- 장소: 1631 Rang du Bord de l'Eau, Municipalité de paroisse de Sainte-Anne-de-Sabrevois, QC J0J 2G0
- 참가비: 100\$
- 문의: 조현우 루카 (438-865-3022)
-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독려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교사를 통해 배포되는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한 컷



신학생 시절, 분명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아는

맞는 방법들을 택하였는데

신학교 생활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영성 생활도

모두 엉망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 신부님께

나의 문제를 털어 놓았다.

신부님은 간단히 말씀하셨다.

“너의 판단과 방법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

예수 성심 성월, 우리 삶의 수많은 일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자.

- 조재형 안드레아 신부(수원교구 궁리본당 주임)

◆ 친교실 청소

6월	엔디지
----	-----

◆ 미사 참여신자

(6/2 ~ 6/7)

평 일	(화)	(수)	(목)	(금)	(토)	(특전)
	10	18	20	11	23	18
주 일	교중	231		합계	331	

[2026년 교황님 기도 지향] 6월 :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보공지 원고 마감 : 매주 수요일 낮 12시

주보공지 이메일 : montrealkcmc@gmail.com

신앙에 주파수를 맞춰요

믿음을 통해 구원은 시작되고, 사랑을 통해 구원은 완성된다

가톨릭신문 2026-06-07 제 3494호 20면

나의 연약함 주님께 고백하고 사랑의 길 걸을 때 구원 완성

구원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온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온다. 그리스도교는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깨달음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다. 따라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느님의 선물이자 은총인 것이다. 결국 믿음을 통해 구원은 시작되고 사랑을 통해 구원은 완성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 없이는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

하느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 속에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살아 계신 하느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믿음 속에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이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 속에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속된 말로 절이나 암자에서 ‘도 닦으며 앉아 있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불신 지옥, 믿음 천국”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미 나의 믿음을 통해 시작되었으니, 나의 정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신앙이다. 혼자 어려우니까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 신앙이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반쪽짜리며, 교회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 안에서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사제와 수도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하느님께 대한 굳센 믿음 안에서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 때 구원은 완성되고 더 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고 정욕을 지닌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사랑의 길을 걸을 때 구원받음을 믿는 것이다. 내 의지를 통해 율법을 지키고 깨달음을 얻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깨달음을 다 얻지 못해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거룩한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랑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사랑의 길을 걸음으로써 나의 죄까지도 씻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을 가는 자는, 사랑의 길을 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가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씀의 우물] 되찾은 아들의 비유

가톨릭신문 2026-06-14 제 3495호 18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작은아들을 품어 주고 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 참조) 다들 아실 테죠. 유명한 이 비유에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여러 이름이 붙여집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인(루카 15,6 참조),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부인(루카 15,9 참조)에 이어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쁨에 젖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루카 15,24 참조)의 비유가 나란히 나옵니다.

세 비유는 100분의 1(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분의 1(잃었던 은전 열 닢 중에 한 닢), 2분의 1(두 아들 중에 한 아들)로 긴박함이 급상승하며, 한결같이 우리 독자로 하여금 회개하여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비유를 들려주시는 동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루카 15,1-2)

‘탕자의 귀환’을 통하여, 우리는 작은아들이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개한 동생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모습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인류 구원 의지를 봅니다.

회개한 친동생을 보고 ‘저 아들(그리스어 본문: 당신의 저 아들은)’이라 부르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친형에게 아버지는 ‘너의 저 아우는’이라고 부르시면서 큰아들의 빗나간 자세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는 죄를 짓기 전에든 후에든 형과 아우, 곧 형제자매 관계는 전과 다름없이 또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2009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초청 강연을 마치고, 이튿날 몇몇 자매님과 함께 부근에 있는 발달장애인 공동체 ‘라르쉬 데이브레이크(L’Arche Daybreak)’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경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침 식사를 하던 이들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습니다. ‘낮선 우리를!’ ... 천사들이 운영하는 천상 공동체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웬 신부(Henri J. M. Nouwen, 1932~1996)님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지내던 중, 자신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큰아들’이라면서 교수직을 접고 토론토의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은 저서 「탕자의 귀환(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A Story of Homecoming)」에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자비 가득한 축복을 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언제나 기다려주십니다. 실망 속에서도 두 팔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당신 자녀들이 당신께 돌아올 때, 그들에게 사랑 가득한 이야기를 건네시며 그들의 어깨 위에 당신의 팔을 올려 놓아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죄인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96페이지)

нау웬 신부님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마치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만큼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106페이지)

[교회상식 더하기] 성체를 모시면 죄가 사라진다?

가톨릭신문 2026-06-14 제 3495호 20면

완전한 이들의 보상 아닌, 나약한 이들 위한 양식



레오 14세 교황이 2025년 10월 5일 바티칸 정원에서 바티칸 헌병대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고 있다. 성체는 우리의 소죄를 씻어주고 미래의 '죽을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죄 앞에 나약한 우리를 위한 해독제다. CNS 자료사진

우리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죄가 있다면 먼저 고해성사를 청하곤 합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1코린 11,27)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꼭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만 성체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성체는 우리 죄를 정화하고, 또 죄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트리엔트공의회 교부들은 성체성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굳건하게 하는 영혼의 영적 양식이며 또한 우리를 일상의 잘못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죽을죄로부터 지켜 주는 해독제로 받아 모셔지기를 원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제2장)

이처럼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체를 죄에 물든 인간을 치유하는 치료약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성사론」에서 “내가 계속 죄를 지으니 치료약이 늘 필요하다”면서 “언제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성체를 모셔야 한다”고 영성체의 효과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성찬례는 성사 생활의 충만함이지만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이라고 강조하셨지요. (「복음의 기쁨」 47항)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마태 26,28)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체는 우리를 죄에서 떼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죄를 용서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죽을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어디까지나 교회와 일치된 사람들을 위한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죽을죄’를 용서하는 성사는 고해성사입니다.

대죄를 부르는 말인 ‘죽을죄’는 “인간이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하느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그의 최종 목적이며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55항)

‘죽을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죄가 십계명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대한 문제가 아닌 가벼운 문제에 대해 죄를 지었거나, 중대한 문제를 어겼지만 이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죄’, 즉 소죄입니다.

간혹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니 고해성사를 하는 것에 회의감이나 부담감을 느껴서, 미사를 드리더라도 성체를 모시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체는 우리의 소죄를 씻어주고 미래의 ‘죽을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죄 앞에 나약한 우리를 위한 해독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간 모임			
주일	시간	단체명	
일요일	9시	레지오	창조주의 모후 Pr.
	9시		셋별 Pr.
	9시		자비의 모후 Pr.
	9시		희망의 모후 Pr.
일요일	9-10시	주일학교	교리실
일요일	12시	첫 영성체 교리	3월 시작
일요일	미사후	성가대 연습	대성전

월간 모임	
시간	모임
첫째주	(수) 명도회(10:30 미사후)
	(일) 사목회, 성가대 월례회
둘째주	꾸리아(주일미사 후)
	(일) 구역장 회의 청소년분과 성모회
셋째주	(일) 자부모회
넷째주	(일) 연렝회(주일미사 후)



MARCHÉ KOREA
김병호 이레네오
(514) 487-1672
6170 Sherbrooke W.
marchekorea.com



서정협 유스티노
Courtier Immobilier
Groupe Sutton - Sur l'île Inc
주택/상가/렌트 종합 부동산
Tel) 514-244-0751
jsuh@sutton.com



캐나다 전지역 유학상담
[고고몬트리올]
카톡 아이디 : GOGOMONTREAL
www.gogomontreal.com
514-473-1311

GLOBAL TAX SERVICES 

비즈니스 컨설팅 & 법인설립
개인 세금신고 & 양육비 신청

www.globaltax.ca
514-225-7441
gtsmontreal@globaltax.ca

Peter Park
Teaching Professional
Ingenieur Allemand



MEADOWBROOK
8370 Cote St. Luc Road
Tel:(514) 433-0223
Montreal/Longueuil/Brossard



팡팡에서 당신과의
소중한 컷
'인생네컷'
1226 Mackay St.
(514) 938-8886



R&K Consulting
캐나다 유학/취업/이민
권민 보나 (Kate Kwon)
퀘벡/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상담 신청]
www.Rnk-consulting.com
카톡 검색 : 캐나다 이민 R&K
514-979-0830



허지연 한국 변호사
캐나다 (416) 518-0595
한국 070-4458-4645
lawyerjiyeonhur@naver.com
한국 부동산 매매 / 상속 / 민형사

〈주보 광고 모집〉

- √ 주보 광고 연중 신청
- √ 운영위원 이영애 띠다 (514-298-8434)
- √ 사무실 (514-989-1033)

〈레지오 단원 모집〉

- √ 레지오 단원 연중 모집
- √ 꾸리아단장 이재순 아녜스 (514-824-481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교리교육을 위해 봉사해 주실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 √ 대상: 견진을 받은 만18세 이상 신자
- √ 문의: 주일학교 교장 함소정 노엘라 (514-625-6573)



Fr. Damian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역시
계산이나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어야하는 것입니다.

2026년 성경 읽기 8



천주교 몬트리올 한국 순교 성인 성당
Mission Saints Martyrs Coréens
(Korean Roman Catholic Church in Montreal)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연중 제1주일						
06/14	06/15	06/16	06/17	06/18	06/19	06/20
신명 7-10장	신명 11-14장	신명 15-19장	신명 20-23장	신명 24-27장	신명 28-30장	신명 31-34장
()	()	()	()	()	()	()
연중 제2주일						
06/21	06/22	06/23	06/24	06/25	06/26	06/27
여호 1-5장	여호 6-8장	여호 9-12장	여호 13-17장	여호 18-21장	여호 22-24장	판관 1-5장
()	()	()	()	()	()	()
연중 제3주일						
06/28	06/29	06/30	07/01	07/02	07/03	07/04
판관 6-10장	판관 11-14장	판관 15-21장	룻기 1-4장	1사무 1-4장	1사무 5-9장	1사무 10-13장
()	()	()	()	()	()	()
연중 제4주일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1사무 14-16장	1사무 17-19장	1사무 20-23장	1사무 24-27장	1사무 28-31장	2사무 1-3장	2사무 4-8장
()	()	()	()	()	()	()

Memo